

# 宗 教 論

朴 亨 龍

有神論을 認受하여 神의 存在를 믿는 사람은 그 神을 追慕의 對象으로하여 展開되는 一般의 意味의 宗教에 注意를 轉向하게 된다. 宗教의 現象을 考察하고 意義를 探知하는 때에 人의 宗教性及 其宗教的 意識의 確實性이 證明되는 것이다. 그는 마치 天體의 存在가 確實한 同時에 그 性質과 運行의 法則을 理解하는 人心의 智能의 確實性이 發見됨과 같다.

그런데 이 一般的 意味의 宗教에 對한 研究는 그 範圍가 廣大하고 部門이 多數하여 實로 그 詳細를 述하기 어렵다. 이 研究에 關係를 가지고 있는 學術은 가장 主要한者로만 꼽아도 宗教史, 比較宗教學, 宗教學, 宗教心理學, 宗教哲學等이 있는 것이다. 그 中에 宗教史는 世界 諸宗教의 歷史的 考察을 行하여 各其 風俗, 教儀, 神話 教理, 制度等을 事實대로 報道하고 比較宗教學은 宗教史가 發見한 諸宗教의 內容 現象을 比較하여 諸宗教間의 異와 同을 發見하며 優와 劣를 指摘함으로써 整然한 分類를 行하고 마침내 宗教의 最高型을 提示함을

本領으로 삼는다. 宗教學(宗敎科學 "Science of Religion")은 比較宗教學이 最近에 와서 더욱 徹底히 科學化하여 가지고 比較研究는 모든 科學에 共通한 方法인 以上 宗教의 科學的研究에 있어서만 唯獨如斯한 形容詞를 附加 必要가 없다하여 그 名稱으로부터 「比較」二字를 削除한者나 宗教의 現象의 人的方面만을 考察하고 信仰의 對象인 神, 永生질은 것의 實在性에 對해서는 干與하지 않는다. 即 그 研究하는 바는 宗教의 形態요 宗教其物이 아니며 一宗教와 他宗教와의 優劣를 示함도 目的하지 않는다고 한다. 宗教心理學은 宗教를 一種의 心理的 現象이라고 보고 宗教의 關係로 부터 生하는 個人의 心的機能을 研究한다. 換言하면 宗教的 意識은 如何히 發現하는가? 又是 宗教的 意義에 의의 心的機能은 如何한 狀態를 呈하는가를 研究한 宗教哲學은 前記諸 學問으로부터 論據를 引出하여가지고 宗教及 宗教的 觀念의 究竟的 根基와 意義를 探求하는者나 그 取扱하는바 兩大問題는 宗教가 무엇이나. 또는 宗教의 眞理가

엇이나 함이다. 이 점에서 宗教哲學은 前記 諸學問과 相異한 것이다. 그러나 宗教哲學이 自家의 固有한 問題들의 解答을 爲한 論議의 進行에 있어서 通踏하는 境域은 實로 廣大하야 以上 諸學問의 主要論題의 多數를 舉論하고 또 一般의 意味의 宗教에 關한 其他 모든 問題들의도 接觸한다. 그러므로 基督敎辯證論의 立場에서 人的 宗教性及其宗教的 意識의 確實性을 알아 보기가 爲하야 一般의 意味의 宗教에 關한 研究을 行함에 있어서 前記 諸學問으로 더브러 直接交涉하지 않고 宗教哲學만을 參考하여도 充分할 것이다.

一、宗教哲學

初代 希臘敎父들과 中古 스콜라學者들의 手下에 宗教哲學은 基督敎의 敎理에 合理的說明을 부쳐 思辯的 神學을 組成한 것이었다. 初代 希臘敎父들은 實로 宗教哲學의 開拓者들로서 基督敎의 論議에 哲學的 原理를 應甲한 達人들이었다. 이미 第二世紀에 저스틴·말티(Justin Martyr)가 宣明하기를 基督敎는 眞正한 哲學이나 그리스도 降生以前이라도 神的 『로고스』(말씀)와 交際하야 生活한 것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그의 弟子 오리의게네(Clement and Origen)가 信仰의 對象인 眞理들이 哲學的 對象도 될수있음을 確信하였다. 특히 오리게네는 敎會의 敎理를 思辯的 神學의 形式으로 轉作하야 플래

토 又は 新플래토 主義의 色彩를 表示하였다. 中古 스콜라 哲學者들은 敎義에 包含된 眞理의 合理的 知識을 얻으려고 아리스토를 主義와 新플래토 主義의 感化 아래서 敎會의 敎義를 解說하는 思辯的 神學을 發展시켰다.

그러나 近代의 宗教哲學은 世界모든 宗教의 一貫한 原理를 研究하기로 目的하는 同時에 어떤 特殊 宗教를 選擇하야 典型이나 標準을 삼아가지고 他 宗教들의 眞理나 謬謬의 程度를 測量하기를 拒絶하는 傾向을 흔히 가진다. 이 近代流의 宗教哲學은 데이비·홀(David Hume)의 依하야 創始되었으나 데이비·홀의 『宗教의 自然史』(Natural History of Religion)가 公刊되고 그의 死後 一七七九年에 『自然 宗教』에 關한 對話(Dialogue Concerning Natural Religion)가 公刊되었다. 그의 『宗教의 自然史』는 宗教的 信念의 心理的 起原을 發見하고 그 信念이 人類의 意識에서 如何히 發展함과 刷新하고 恒常 變動하는 典型들로서 如何히 進化함을 追跡하려고 試圖하였다. 『自然 宗教』에 關한 對話에서 홀은 宗教의 究竟의 問題들에 向한 自己의 態度를 表明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懷疑的이었다. 그 때의 理論들은 宗教的 衝動이 人性의 固有의 需要와 傾向에 起原하였다고 斷言함으로써 近代流의 宗教史及 宗教哲學을 아울러 創始하였다. 다음에 宗教를 神命으로 看做된 道德的 義務의 遂行으로 본 칸트와 宗教를 神에 向한 絶

對歸依의 感情으로만 슬라의 아파와 宗教를 辯證法에 依하여 發展하는 知識으로만 헤겔과가 斯界의 開拓者의 事役을 行하였다. 헤겔以後의 宗教哲學運動은 幾多의 分派를 生하여 繼續進行되었다. 最初且重要한 分派는 헤겔自身の 創始에 依하는 絶對的 或 思辯的 觀念論 (Absolute or Speculative Idealism)으로 自然과 有限心 事에 總包括 (All-inclusive)의 絶對者 (Absolute)의 分化로 보아 一元的 觀念論을 懷抱한 것이다. 이派의 代表者로 凡 派의 (Vatke) \* 헤겔의 (Biedermann) \* 폰 헤겔의 (Prieleiderer) \* 폰 헤겔의 (E. Von Hartmann) \* 도너의 (A. Dornier) 등이 著名하고 英米의 카인 (John Caird and Edward Caird)과 왓슨 (Watson) \* 로이스 (Royce) 등을 들 수가 있다. 다음에 人格的 觀念論 (Personal Idealism)은 生의 人格的 價値, 精神生活의 獨立性을 強調하여 神과 人의 同一視를 拒絶하고 兩官의 交互作用을 認定으로서 有神論의 色彩을 濃厚하게 表示하였으나 로이스의 著書 (Loize, 1817-81)가 發源하여 아인켄 (Rudolf Eucken)과 시켄 (Hermann Sicken)에 依하여 充分히 發表되고 英國의 시 프리글-패티슨 (Pringle-Pattison)과 해쉬 (Hastings Rashall)의 共鳴을 얻었다. 第三에 經驗論의 (Empirical School) 宗教의 形而上學的의 思辯的 理論을 排斥하고 宗教의 歷史的 事實과 宗教的 意識의 實際的工作을 重視하는 運動으로 리스 (Risch)及 其學徐

를 代表者로 하여 사바티어 (Auguste Sabatier) \* 하딩 (Harting) 등의 名著를 내었다. 이 宗教哲學의 經驗派와 呼應하여 英米에 作興한 實踐論은 「眞理는 價値다」는 原理를 宗教에 應用하여 所謂 工作價値의 標準으로서 宗教의 生的 要素와 死的 要素를 區別하는者는 詹姆斯 (Wm. James)를 그 代辯者로 하였다. 第四로 社會的 宗教論은 宗教를 純全히 社會的 見地에서 研究하여 그 超越의 方面을 全히 除外하고 그것을 一個 社會的 福利爲한 道德的 動作으로 만드는 新興運動이다. 그 開祖로 十九世紀 上半의 佛人 가스키르·앙리 (Auguste Comte)를 指名할 것이나 最近 代表者로는 獨逸의 디켄 (Paul Natorp)과 英國의 스탠톤 (Stanton Coit)과 佛國의 코이유 (Guyau) 등이 있다. 此等 四派의 思想運動은 現今 近代流의 宗教哲學界의 主要 傾向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이 何者도 優越權을 가졌다고 할만한者는 없다. 勃興의 先後로 보아서는 十九世紀 上半에 思辯的 思想의 가장 먼저 始作되고 다음에 宗教的 經驗의 事實에 注重하는 傾向이 이리나저 齊一치 아니한 各派의 宗教論들을 提出하였으나 그중 이 何者도 優越權을 獨占한者가 없다. 이 近代流의 宗教哲學은 어떤 特殊 宗教를 選擇하여 典型이나 標準을 삼아가자고 다른 宗教들의 眞理나 誤謬의 나의 程度를 測量하기를 拒絶한다고 하는 宣言된다. 故로 「宗教哲學은 반드시 宗教를 辯證코치 하는

者는 아니다。宗教哲學의 結果는 宗教의 破壞의 終點  
 든지도 모른다」고 어떤『宗教哲學者』는 말한다。『그런  
 데 神學은 처음부터 宗教를 合理的으로 受容되기 쉬운  
 것이 되게하려는 目的을 가졌다。故로 神學은 宗教의  
 眞實性을 假定한 위에 成立한것이라』고 서는 또말한  
 다(帆船理一節)。다시 말하면 宗教를 辯證하는것은 宗  
 教의 目的이오 宗教哲學의 目的은 아니라고 一派의宗  
 教哲學者들은 斷言한다。

그러나 世界諸宗教의 事實을 考察하고 그 究竟的根  
 基와 意義를 探查함에 있어서 過度한 偏見을 가지지  
 아니하고 如干 公正한 態度라도 取한다면 探查의 結果  
 는 宗教의 全的破壞가 아니라 어떤程度의 辯證이 되  
 는것이다。아니 그중의 어떤 特殊宗教(基督教)의 優越  
 權을 是認하게 되는것이다。그러므로 近代流의 諸宗教  
 哲學者들은 다 世界諸宗教의 最上位에 어떤 特殊宗教  
 基督教을 配置하는것이 事實이다。그들은 흔히 宗教進  
 化論의 先入見을 가지고 그 特殊宗教(基督教)까지라도  
 宗教進化의 一過程으로 보는때문의 그 絕對性을 認定  
 함과 같은일은 不肯하지마는 오히려 그 優越性을 是  
 認함에는 躊躇치않는다。進一步하야 그들중에는 宗教哲  
 學의 作業으로서 그 特殊宗教의 思辯의神學을 建造한例  
 에 있어서 벨키(Vaake)의 『人間の解放』(“Die Menschli-  
 che Freiheit”)나 베르만(Bedermann)의 『基督教義學』

(“Christliche Dogmatik)과 같은것이다。그뿐만아니라 近  
 代流의 宗教哲學運動이 盛行하는 反面에 舊式의 保守  
 的 宗教哲學研究도 不絶하야 啓示宗教의 優越權만아니  
 라 그 絕對性을 哲學的考察외 擁護하여온것이다。이方  
 面の 研究者들은 『眞理와 救援의 基督教體系의 完全無  
 缺함을 본다。諸異教의 發見되느마 모든 眞理가 다基  
 督教의 神的으로 包含되었고 다시 말하면 結合되었고  
 그것들의 誤謬는 慈悲하게도 除外되었다』한다。(L. S.  
 Keyser: “The Philosophy of Christianity,” 1928, pp. 81, 8  
 2)。「純潔한 線路를 밟아오게하고 또한 全然宗教라고  
 思惟되는 宗教는 오직 하나만이 있으니 그것은 곧基  
 督教이다」고 말한다。(Herman Barneck: The Philosophy of  
 Revelation” 1909, p. 307)。「既述의 事實에 依하여 보면  
 現代의 宗教哲學研究란 반드시 世界諸宗教의 一貫한原  
 理를 研究함이 맞는것이 아니라。어떤 特殊宗教의 優  
 越性乃至絕對性을 認定하기도하는것이며 或은 그 特殊  
 宗教의 哲學的辯證을 行하기도하는것이다。그것은 研究  
 者의 計畫과 그方法如何에 依하여 宗教에 破壞의影響  
 을 줄수도 있지마는 그와 反對로 어떤 宗教의 眞理  
 를 擁護하는 工作을 할수도있는것이다。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基督教辯證論의 立場에서 宗教哲學의 一部를參  
 考케한 原因의事實이다。」  
 그리고 思想上混亂의 極한 宗教哲學의 對한 많은

期待을 가져는 것은 아니다. 斯學의 對한 우리의 信任은 厚한便이 아니라 薄弱한便이다. 다만 그 一部를 參考하고 그 所說에 取捨를 行하여 人의 宗教性及其宗教的意識의 確實性을 證明함에 必要한 材料 얼마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宗教哲學은 思想上混亂이 甚하니 먼저 그 思想表現의 形式에 있어서도 統一을 缺如한 것이다. 最近에 出世한 여러 著名한 宗教書類를 涉獵하여 보면 (一)或은 宗教哲學의 論議를 有神論의 局限하여 世界의 最高實在, 或은 神을 믿는 信念의 確實性을 證明함에 못난다.

아 試圖가 이런 特殊한 哲學的推想의 調和되고 是 多樣的 見地에서 行하는 것이다. 例하면 그 論議를 全然히 啓示를 宗教의 源泉을 삼아서 進行한 것 있고 (H. Mansel: Limits of Religious Thought, London, 1858) 進化論의 人格主義를 基礎한 것 있고 (J. Fiske: Idea of God, Boston, 1885) 直觀哲學을 基礎한 것 있고 (S. Harri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ism, New York, 1887) 超越的 觀念論을 基礎한 것 있고 (C. B. Upton: Basis of Religion's Belief, London, 1893) 道德的考察을 基礎한 것 있고 (A. Seth: Two Lectures on Theism, Edinburgh, 1897) 超越的 觀念論을 基礎한 것 있고 (J. Royce: The World and the Individual, New York, 1900-01; cf. A. Caldecott: Philosophy

of Religion, ib. 1901). (一)或은 宗教哲學의 一 論議를 認識學의 局限하여 宗教的知識의 理論을 建設함으로써 滿足하기도 한다. 例를 들면, 心理學, 倫理學, 其他 學問들로 부터 引出한 論據에 依하여 價値存在의 公理("Axiom of Conservation of Value")를 設置한다 같은 것 있고 (Auguste Sabatier: The Philosophy of Religion, and ed, 1897; H. Hartung: The Philosophy of Religion, London, 1906). (三)或은 宗教哲學의 보다 더 廣大한 範圍를 취하여 宗教와 關聯하여 이어나는 多方面的 問題들을 概括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或은 不可知論, 純感情, 直觀, 論理的 證明에 反對하여 絕對者의 關한 眞知識의 問題, 宗教의 必然性과 啓示의 根本的 意義의 問題, 神外人을 自意識의 靈으로 同一視하여 有限人格들의 모든 靈의 生活(有限人格들 自身들 中에서와 無限과의 關係에서)의 統一을 肯定하고 道德的觀念論을 위하여 宗教觀念의 究竟的解釋의 問題 등을 包含한다 (J. Caird: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Religion, Edinburgh, 1880). 或은 宗教의 性質의 起原의 發展 人의 性質의 高等實有의 對한 一의 關係生活로써 宗教 即 一 提案하는 바와 實現하는 바 神의 倫理的觀念과 科學的 又 哲學的 世界觀과의 調和無限絕對의 我(Self)와의 關係에서의 事物들이 人物들의 運命들을 研究한다 (Y. T. Ladd: Philosophy of

Religion ib. 1905). 五 或曰 宗教의 權威·敎義·概念論 經驗의 考察을 認識學的 討論은 出發하여 基督敎의 思想의 變遷을 追跡하고 神·世界·人에 關한 神學論으로 終結하기 勿한다 (Watson: Philosophical Basis of Religion, 1907). (四) 或曰 基督敎의 敎義를 哲學的으로 辯證하여 基督敎思想體系를 最善의 哲學으로 提示한도 있다. 其中 에는 그리스도의 品位를 中心으로 삼아가지고 基督敎全體系의 論議를 行한 예도 있다 (A. M. Fairbairn: The Philosophy of Christian Religion, 1903). 或曰 合理性과 辯論을 集中한 예도 있다 (Hermann Bavinck: The Philosophy of Revelation, 1909). 或曰 組織科學에 包含된 大問題에 順序의 以로 舉論한 예도 있다 (James Orr: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 1890-91).

우리는 이미 宣言한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以上諸形式의 研究中에서 第二, 第三, 第四를 가장 重要視하여 參考하게 될 것이다. 卽 人의 宗教性과 宗教的意識의 確實性을 論證할 때는 宗教의 現象學的 考察과 認識學的 考察의 모두 必要하다고 生覺한다. 그러나 如斯한 考察은 반드시 基督敎辯證學的 立場에서 行할 것이오 決코 無方向한 論議를 展開할 것이 아니다.

—(未完)—

暗示의 本文과 題目 (2)

- 一, 그들아 네 安息의 때 「安息日이 지나매 막달나 마리아와 야고브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수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께 바르려 하였」 (마가十六章一節)
- 一, 신령한 근심하 리우 「여호와와 더불어 어찌 후앙이 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냐. 곧 심히 어둠과 광명한 것이 없나니라」 (아모스五章二十節)
- 一,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사자를 앞으로 보내시매 저희가 사마리아 한촌에 이르러서 예비하리니 하더라」 (누가九章五十二節)
- 一, 亨通의 辭한 하나님은 표준 「나의 평생의 친과 인자함이 반드시 나를 따를지며 여호와와 더불어 평행하 거 하리로다」 (시편二十三章六節)
- 一, 하나님의 계시는 비가 오듯 천을 무정을 못할가 「모세가 갈아대 주—함께 행치 아니 하시랴거든 우리로 이곳에서 올라가지 말게 하소서」 (출애람三十三章十五節)
- 一, 광야에서 나온 소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이 비탈이 모양으로 내려 그우에 임하심을 보시되나 하늘노서 소래가 있어 말삼 하시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三章十六—十七節)